

기업의 융합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승일*, 송성빈**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¹, 오산기업자문단**

A Study on The Effect Financial Performance of Convergence Factors on Corporate

Seung-II, Choi*, Seong-Bin, Song**
Dept. of International Trad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OSAN CORPORATE ADVISORY CO.**

요 약 현대는 융합의 시대이다. 복잡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융합이라는 테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 수 없다.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융합의 바람은 거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융합으로 인하여 은행과 보험이 결합된 방카수랑스란 이름으로 은행업과 보험업이 통합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은행 지점 내에서 투자 상담, 주식매매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융합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기업의 융합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융합요인을 구성하는 외부환경요인, 내부환경요인, 핵심역량요인 모두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융합, 외부환경, 내부환경, 핵심역량, 재무적 성과

Abstract Modern is the era of convergence. In the complex position of the company to survive in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it can not be a mandatory fusion rather than choice. Wind convergence also in the art can be said to castration.

This phenomenon can be found in many real life. Most real-life contact with the service sector is no exception. Due to a number of banks and insurance combined Banca named fusion of French banking and insurance business are integrated. Even recently, the situation has been provided by Investment consulting, equity trading services within bank branch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need for convergence of corporate businesses convergence factors examin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n whether any impact on the financial aptitud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make up the fusion research factors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both core competencies were factors to affect financial performance.

Key Words : Convergence, External environment, Internal environment, Core competencies, Financial performance

Received 20 June 2015, Revised 23 July 2015

Accepted 20 August 2015

Corresponding Author: Seong-Bin, Song
(OSAN CORPORATE ADVISORY CO.)

Email: ssb222@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현대는 융합의 시대이다. 복잡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융합이라는 테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 수 없다.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융합의 바람은 거세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의 융합, 복합 현상은 미래 성장 엔진이라 일컬어지는 IT(정보통신), BT(생물학), NT(나노기술), CT(컨텐츠), ET(환경) 등과 같은 5T 간에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융합으로 인하여 방카수랑스란 이름으로 은행업과 보험업이 통합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은행 지점 내에서 투자 상담, 주식매매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 혁신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융합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기업의 융합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기업의 융합을 위한 방향제시와 융합전략수립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융합의 개념과 융합요인

2.1.1 융합의 개념

융합이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이 융합이란 단어는 과학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실생활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융합이란 두 가지 이상이 합해져 하나가 되는데 이는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되기 보다는 하나로 통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설명되어져 '통섭'이라는 용어와도 관련되어 설명된다.

이처럼 현대는 융합이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여러 학술대회 및 행사, 언론매체

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우리가 접하고 소개되고 있는 단어들만 해도 융합, 융합시대, 융합기술, 기술융합, 산업융합, 융합형 인재, 융합컨텐츠, 융합학문, 방송통신융합, 바이오융합, 나노융합, IT융합, 디지털융합, 융합제품, 융합서비스, 융합기기, 융합경영 등으로 소개된다.

2.1.2 융합요인

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경제적 효익'이라는 조건하에서 다양한 개별적인 활동과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특히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오늘날은 세계 환경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약과 각종 정책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독창적인 경영합리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의 공동화와 협동화뿐만 아니라 기업종 기업 간 교류를 통한 경영능력의 강화까지도 요청받고 있다. 특히 자본과 기술 인력 면에서 구조적으로 미약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한 시장개방과 국제화, 기술혁신의 진전, 수요구조의 변화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경영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2].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융합을 위해서는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경영자와 임직원이 된다. 즉 경영자 및 임직원의 역량이 기업생존의 핵심요인이 되며, 또한 이러한 인적 역량은 임직원 개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과 노사관계, 직원의 교육, 혁신, 사회공헌 등 시스템적 요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환경요인, 내부환경요인, 핵심역량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 외부환경요인

Poter(1985, 1990)의 연구에서 기업이 속한 산업구조가 기업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각 기업의 경쟁 전략은 산업 내에서 고유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이 속한 산업 즉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9, 10, 11].

이처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은 기업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최근에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의해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융합의 외부환경요인으로서 여러 환경요인 중 융합지식 공유 요인, 융합 인프라 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나. 내부환경요인

Wernerfelt(1994)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고[15], Prahalad and Hamel(1990)은 내부자원이 기업의 핵심역량이라고 주장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융합의 내부환경요인으로서 융합리더십 요인, 융합 리스크관리 요인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다. 핵심역량요인

현대 기업경쟁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로 핵심역량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Prahalad(1990)는 기업이 보유한 역량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핵심역량과는 달리 경쟁우위를 보장하거나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자원에 대하여 차별화를 주장하였다[12].

또한 Mahoney(1995)는 경영관리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기업특유의 관리기술 등이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10]. 이처럼 기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학문적·현실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3, 4, 6, 8, 16].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융합의 핵심역량요인으로 융합기술개발 역량, 융합 교육학습 역량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2 성과의 개념과 구성

2.2.1 성과의 개념

기업에서 성과는 생산성, 품질, 적시성, 대응성, 효과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경쟁자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서 조직이 성취한 것을 측정

하는 것으로써 성과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1, 14].

성과의 측정은 항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만족과 밀접하거나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거의 반세기동안 학자들과 경영자들 사이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성과기준은 경영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알기 위한 척도이며, 경영목표의 달성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정의하여 측정하는 것은 성과향상의 기본단계이므로 성과측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2.2 재무적 성과

재무적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기업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들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로는 투자수익률, 경제적 부가가치, 수익성과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자본회전을 및 현금흐름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은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무비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기업의 수익과 가치를 예측 하는데 한계가 있고 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적절치 못하다. 이에 기업의 자본과 부채를 합친 총비용을 고려하여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에 중점을 둔 EVA에 의한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13].

재무적 성과 지표들은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다른 관점과 관련된 성과지표들을 이용해서 실행한 전략들이 얼마나 향상된 결과를 낳는지 알려준다.

기업은 초기에는 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시제품 생산, 대량생산 설비 구축, 마케팅 채널 구축 등으로 옮겨갈수록 재무 자원에 한계를 가지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의 측정변수로서 매출액 증대와 수출 증대를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2.3 융합과 재무적성과

이대훈(2009)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이업종교류의 현황을 실증 분석해보고 이업종교류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5]. 송재희(2008)는 우리나라에서의 이업종교류활동은 그 역사성이 20여년이나 되고 있고 그 운영형태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나 이업종교류활동에 참가하

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네트워크구축 및 정보교류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성과가 가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규모 등의 기업특성과 정보공유, 기술개발, 마케팅활동 등의 만족도와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고 기업특성과 매출액 증대, 순이익 증대 등의 재무적 성과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7].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융합요인과 재무적 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융합 외부환경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융합지식공유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융합인프라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융합 내부환경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융합리더십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융합리스크관리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융합 핵심역량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융합기술개발 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융합교육학습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실증분석

3.1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문헌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경남지역 소재 기업 중 융합경영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의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4년 8월 23일부터 9월 21까지 약 30일 동안 실시하였다. 총 설문지는 400부 중 381부가 최종 회수되었으며 이 중 활용이 불가능한 18부를 제외한 363부를 통계분석에 활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들의 각 설문항목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조사항목 및 측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리커트의 5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각 세부적 설문구성은 아래와 같다.

3.2.1 융합요인

가. 외부환경요인

외부환경요인은 융합지식공유요인과 융합인프라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융합지식공유요인은 융합파트너와의 정보공유, 지식, 기술정보의 공유, 공동기술개발, 전문 및 일반인력 공유, 공동마케팅으로 구성하여 4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융합인프라요인은 융합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 융합을 위한 조직구조의 개선, 개방형 업무추진으로 구성하여 3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내부환경요인

내부환경요인은 융합리더십요인과 융합리스크관리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융합리더십요인은 리더의 전문성보완능력, 융합수행의지, 공감대형성으로 구성하여 3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융합리스크관리요인은 재정확보, 리스크관리수준으로 구성, 2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 핵심역량요인

핵심역량요인은 융합기술개발요인과 융합교육학습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융합기술개발요인은 핵심기술보유, 융합기술 강화노력, 표준화 선도노력으로 구성하여 3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융합교육학습요인은 전문교육프로그램 추진, 교육시설을 통한 인력확보, 숙련 연구개발 인력 보유로 구성하여 3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2 재무적 성과

재무적 성과는 매출액과 수출 증대로 구성하였으며 매출액은 매출, 주문량, 샘플요구량, 판매량으로 구성되어 4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출 증대는 수출액, 시제품요구, 오더, 수출량으로 구성되어 4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기초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활용된 설문지는 363부이며 기초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조업이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립 년 수는 5년 이하가 31.1%로 가장 많았고 5년 초과 10년 이하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업 수는 50명 이하가 75.5%를 차지해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Frequency Analysis

	Item	Person	%
Category	Manufacturer	193	53.2
	Services	123	33.9
	Wholesalers retailers	24	6.6
	Construction	7	1.9
	기타	15	4.1
Years of establishment	5 year below	113	31.1
	6 - 10 year	96	26.4
	11 - 15 year	80	22.0
	16 - 20 year	25	6.9
	20 year more than	49	13.6
Sales (month)	10,000,000 won below	24	6.6
	10,000,001-20,000,000	15	4.1
	20,000,001,-30,000,000	19	5.2
	30,000,001,-50,000,000	28	7.7
	50,000,001,-100,000,000	43	11.9
	100,000,001-200,000,000	82	22.6
	200,000,001-300,000,000	27	7.4
	300,000,001-500,000,000	28	7.7
500,000,001 more than	97	26.8	
Employees	50 below	274	75.5
	51 -100	59	16.3
	101 - 200	18	5.0
	201 - 300	12	3.2
	301 more than	0	0

3.4 신뢰성,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에 있어서 동일한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해 다 항목 척도를 이용하므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기준에 따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타당성분석의 방법으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겐 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External Environment

Variables	1	2	Cronbach's α
knowledge2	.883		.915
knowledge3	.851		
knowledge1	.794		
knowledge4	.789		
infra2		.869	.839
infra1		.803	
infra3		.747	
Eigen	3.102	2.399	
%	44.315	34.266	

<Table 2>에서는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적절히 잘 묶였으며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뢰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Internal Environment

Variables	1	2	Cronbach's α
leadership2	.881		.868
leadership3	.857		
leadership1	.736		
Risk1		.881	.815
Risk2		.803	
Eigen	3.347	.679	
%	66.941	13.573	

<Table 3>에서는 내부환경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적절히 잘 묶였으며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뢰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Core Competencies

variables	1	2	Cronbach's α
study2	.887		.884
study1	.859		
study3	.785		
T. D 2		.873	.873
T. D 1		.838	
T. D 3		.796	
Eigen	2.442	2.400	
%	40.694	40.005	

<Table 4>에서는 핵심역량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적절히 잘 묶였으며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뢰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Financial Performance

variables	1	2	Cronbach's α
Export1	.879		.924
Export4	.860		
Export2	.826		
Export3	.815		
Sales2		.826	.891
Sales1		.823	
Sales4		.818	
Sales3		.787	
Eigen	3.236	3.058	
%	40.451	38.219	

<Table 5>에서는 재무적 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적절히 잘 묶였으며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뢰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가설검증

3.5.1 가설 1의 검증

융합 외부환경요인과 재무적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6>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1.362		10.865	.000
knowledge	.298	.357	6.163	.000***
infra	.272	.308	5.324	.000***

R²=0.374, F=107.087(p=0.000)

가설 1은 융합 외부환경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R²값이 0.374이고, F값이 107.087(p<0.001)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이 재무적 성과에 전체 분산 중 37.4%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수준은 p<0.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적이어서 융합 외부환경요인은 재무적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1-1은 융합지식공유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t값이 6.163이며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융합지식공유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며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가설 1-2는 융합인프라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t값이 5.324이며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융합인프라요인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1-1의 융합지식공유, 1-2의 융합인프라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융합 외부환경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으며 융합 외부환경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2 가설 2의 검증

융합 내부환경요인과 재무적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7>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1.168		9.627	.000
leadership	.365	.389	7.405	.000***
risk	.299	.336	6.404	.000***

R²=0.436, F=138.310(p=0.000)

가설 2는 융합 내부환경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R²값이 0.436이고, F값이 138.310(p<0.00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이 재무적 성과에 전체 분산 중 43.6%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수준은 p<0.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적이어서 융합 내부환경요인은 재무적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2-1은 융합리더십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t값이 7.405이며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융합리더십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며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가설 2-2는 예산지원과 리스크관리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t값이 6.404이며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산지원과 리스크관리요인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2-1의 융합리더십, 2-2의 예산지원과 리스크관리는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융합 내부환경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으며 융합 내부환경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 가설 3의 검증

융합 핵심역량요인과 재무적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8> Verification of Hypothesis 3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1.449		12.398	.000
T. D study	.310	.361	6.551	.000***
	.264	.317	5.759	.000***
R ² =0.381, F=110.121(p=0.000)				

가설 3은 융합 핵심역량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R²값이 0.381이고, F값이 110.121(p<0.001)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

이 재무적 성과에 전체 분산 중 38.1%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수준은 p<0.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적이어서 융합 핵심역량요인은 재무적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3-1은 융합기술개발역량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t값이 6.551이며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융합기술개발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며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가설 3-2는 융합교육학습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t값이 5.759이며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융합교육학습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3-1의 융합기술개발역량, 3-2의 융합교육학습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융합 핵심역량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으며 융합 핵심역량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기업의 융합요인과 재무적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가설 1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융합 외부환경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는 1-1, 1-2, 융합지식공유요인과 융합인프라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부요인 중 1-1. 융합지식공유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융합을 수행하면서 파트너와의 시장정보, 비즈니스 지식, 기술정보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공동 기술개발, 노하우 전수에 대한 기술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전문, 일반 인력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융합을 통해 창출된 기술 및 제품의 공동 마케팅과정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재무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 융합인프라 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융합을 수행하면서 융합 활동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이 높으며, 융합을 위한 개방형 조직문화가 조성되고, 융합을 위한 개방형 업무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지면 재무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2의 검증 결과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융합 내부환경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는 2-1, 2-2의 융합의 융합리더십요인과 예산지원과 리스크관리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부 요인 중 가설 2-1. 융합리더십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융합을 수행하면서 자사의 부족기술에 대한 보완능력 즉 전문성을 강화하고, 파트너와의 융합과제 수행의지가 높고, 융합과제에 대해 파트너가 느끼는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 예산지원과 리스크관리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융합을 수행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투자와 재정 확보를 잘 운영하고, 신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과 리스크 관리를 잘 수행하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융합 핵심 역량 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는 3-1, 3-2 융합기술개발역량요인과 융합교육학습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부요인 중 3-1. 융합기술개발역량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융합을 수행하면서 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초, 원천, 융합기술에 대한 강화노력을 경주하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지원과 융합분야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재무적 성과는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2. 융합교육학습요인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융합

을 수행하면서 융합기술 전문 교육프로그램 추진을 원활히 행하고, 교육기관설립을 통한 수요 지향적 인력양성 확보가 원활하며,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 보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재무적 성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 [1] B. J. Kim, "The influence of strategic adaptability to market dynamism on performance in Korean consumer packaged goods market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1990.
- [2] B. S. Park, "A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y for actual activation plan of inter-business information and technology exchange of small & medium industries,"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00.
- [3] Chandler, G. N., Hanks, S. H., Founder Competence, The Environment, And Venture Performance, Et &P, pp. 77-89, 1994.
- [4] Child, J., "Organization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Sociology, Vol. 6, pp. 2-22, 1972.
- [5] D. H. Lee,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Degree of Different Business Exchange Activ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in Small & Medium Venture Industry," The Graduate school of Gunguk University, 2009.
- [6] Hambrick, D. E. & Mason, P. A., "Upper Echelons :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9, pp. 193-206, 1984.
- [7] J. H. Song,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MEs and the Performances of Hetero-Sectoral Exchanges,"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2008.
- [8] Nanus, B., Visionary Leadership,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CA, 1992.
- [9] Porter, M. E., Competitive Strategy: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Free Press, New York, 1980.

- [10] Porter, M. E.,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Free Press, New York, 1985.
- [11] Porter, M.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New York, 1990.
- [12] Prahalad, C. K., and Hamel, G.,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May-June, pp. 79-91, 1990.
- [13] Quinn, R. E. & Rohrbaugh, J., "A Spatial Model of Effectiveness Criteria: Towards a Competing Values Approach to Organizational Analysis," *Management Science*, Vol. 29, pp. 363-377, 1983.
- [14] S. H. Jeong, "Influences of Empowerment and Leadership on Employees' Attitude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01.
- [15] Wernerfelt, B.,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 pp. 171-180, 1994.
- [16] Westley, F., Mintzberg, H., "Visionary Leade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0, pp. 17-32, 1989.

최 승 일(Choi, Seung Il)



- 2003년 8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9년 3월 ~ 2005년 2월 : 경남대학교 강의
- 2004년 8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강의
- 2008년 8월 ~ 현재 : 창원대학교 강의
- 관심분야 : 마케팅, 글로벌경영, 융합경영

· E-Mail : csi0305@naver.com

송 성 빈(Song, Seong Bin)



- 1997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5년 2월 :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경제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창원대 융합협력센터
- 2011년 5월 ~ 현재 : 오산기업자문단 대표컨설턴트

· 관심분야 : 융합경영, 글로벌 경영
· E-Mail : ssb222@naver.com